

## 중남미 경제통합과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이내영(고려대)\*\*

- I. 들어가는 말
- II.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추진 배경
- III. 미주자유무역지대의 추진 경과와 협상의 주요 쟁점
- IV. 미주자유무역지대의 출범 전망과 주요 변수
- V. FTAA 출범의 영향과 한국의 대응전략

### I. 가

최근 10년간 세계경제질서의 뚜렷한 양상의 하나는 한편으로는 경제가 국경을 넘어 통합되는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적 차원의 경제적 통합이 심화되는 지역화(regionalization)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Frankel, 1997; Mansfield and Milner, 1997). 2001년에 발간된 WTO 자료에 의하면 2000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240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

\* 이 논문은 2002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2072-BM2085)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Nae-Young Lee (Korea University, nylee@korea.ac.kr), "Economic Integration of Latin America and Free Trade of the Americas".

Trading Arrangement, RTAs)이 이미 체결되었거나 협상 중에 있으며, 그 중 약 70%인 172개가 효력을 발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WTO 2001). 또한 동아시아의 몇 개국을 제외하면 WTO가입국 대부분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지역적 무역체계에 소속되어 있다.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추세를 보면, 1960년대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새로운 보호주의의 파고가 높던 1970년대에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이후 1980년대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990년대 이후 다시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에 지역무역협정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강화 추세는 장기적으로는 보다 세계적인 차원의 자유무역체제의 구축을 위한 과도기 단계로 볼 수 있지만, 세계적인 규모의 자유무역체제의 형성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양면성을 갖는다(Anderson & Blackhurst, 1993).<sup>1)</sup>

지역주의가 전 세계적 차원으로 가속화되고 있지만 지역경제통합의 정도와 제도화의 정도는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Mansfield & Milner, 1997). 유럽은 지역경제통합의 시기나 제도

<sup>1)</sup> 지역주의의 가속화 현상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 핵심적인 쟁점의 하나는 지역주의가 다자주의적 자유무역질서의 형성과정에 도움을 주는가 아니면 이를 방해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Bhalla & Bhalla, 1997; Frankel, 1997). 이 같은 쟁점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제시되어 왔다. 먼저 자유주의 시각은 지역무역협정을 세계적 무역자유화의 디딤돌로 간주하고, 지역주의가 오히려 다자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낙관적 견해를 제시한다. 반면 현실주의 시각은 지역주의가 증가하면 세계경제가 지역별 블록으로 분열되고 이들 지역 사이의 대립과 경쟁으로 인해 다자주의적 무역질서의 형성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화의 정도에서 다른 지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앞서 있는 지역이다. 거시적 차원의 제도적 틀(각료위원회, 집행위원회, 그리고 유럽재판소)과 미시적 차원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관한 규칙 등을 마련하여왔다.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유럽은 경제통합을 넘어 정치통합의 단계로 심화되고 있다.<sup>2)</sup>

가장 오래된 지역통합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높은 수준의 통합을 달성한 유럽을 예외로 한다면, 미주지역은 1990년 이래 지역경제통합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다. 미주 통합의 아이디어는 19세기부터 시몬 볼리바르와 같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등 오랜 역사를 갖지만, 1990년대 이래 현실적인 대안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중남미 지역의 경제개혁과 개방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가 1990년대에 출범하였고, 기존에 존재해왔으나 정체되어있던 소지역 통합체들도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다. 이 결과 중남미 국가들의 역내 무역과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왔고, 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이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90년대 중반이후

---

<sup>2)</sup> 동아시아와 미주지역은 유럽에 비해서는 지역경제통합의 단계나 제도화의 정도에서 뒤쳐 있지만, 미주와 동아시아 사이에도 지역주의의 역동성과 다양성이라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미주대륙이 1990년대 중반이후 NAFTA와 MERCOSUR의 출범으로 지역통합이 가속화되고 왔고, 최근에는 전 미주대륙을 단일시장으로 통합하는 야심적인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이 2005년 말 출범을 목표로 진행되고 이는 반면, 동아시아 지역은 아직도 의미있는 지역통합체가 등장하지 못하고 있고, 현존하는 APEC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느슨한 지역통합만이 이루어진 상태이다(Choi & Lee, 2002).

에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결성의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2001년 4월 캐나다 퀘벡에서 개최된 제 3차 미주정상회담에서 쿠바를 제외한 33개국 정상들이 2005년 1월까지 협상을 종료하고 2005년 12월 31일에 발효시킬 것을 합의하여 구심점을 잃고 정체되어 있던 FTAA 협상이 다시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미국 부시 행정부가 이전 클린튼 정부에 비해 FTAA 협상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어, 2002년 8월에는 미 의회로부터 무역증진 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을 획득해서 FTAA협상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시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 및 이라크 재건 등에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중남미 지역 문제, 특히 FTAA 협상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FTAA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것에 관한 부정적 전망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Castañeda, 2003).

FTAA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5년 출범하게 되면 8억 명의 인구와 12조 달러에 달하는 GDP규모를 갖게 되어 유럽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FTAA의 출범은 미주지역정치경제질서는 물론 세계경제질서, 나아가 한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FTAA는 역내국가간 재화이동에 대한 관세의 폐지 또는 인하, 통관 규정 간소화, 수출입 쿼터 및 보조금 폐지 등 각종 무역장벽의 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FTAA가 출범하면 미주지역 국가들의 무역장벽을 제거해서 무역과 투자의 활성화를 이루고 경제성장에 기여하겠지만,

역외 국가들은 세계최대의 시장에서 차별을 당하게 되고, 여러 산업에서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이 발생하여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FTAA가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 자본의 이해만이 반영되고 시민사회의 의견과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으며, FTAA가 실현되면 환경, 사회복지, 노동권 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미주지역 전체에서 FTAA 반대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중남미 경제통합의 진전의 원인과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출범 전망과 영향을 논의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다음의 세가지 쟁점을 논의하려고 한다. 첫째, 왜 중남미의 지역경제통합이 1990년대 이래 활성화되어 미주자유무역지대의 출범 논의까지 빠르게 진전되는가? 둘째, 미주지역에도 유럽처럼 범지역적 수준의 통합체인 미주자유무역지대(FTAA)가 예정대로 2005년까지 현실화될 수 있는가? FTAA의 출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무엇이며 FTAA 출범의 시나리오를 제시할 것이다. 셋째,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출범될 경우 세계경제질서와 미주지역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또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II. (FTAA)

중남미 국가들은 1960년대부터 유럽경제통합운동의 영향을 받아

경제통합을 추진해 왔다.<sup>3)</sup> 그러나 1960년대이후 결성된 미주의 지역통합은 기본적으로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을 지속시키는 가운데 경제통합을 시도했으며, 보호무역정책의 유지, 각국간의 경제정책의 충돌, 권위주의 정치체제 등으로 뚜렷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정체상태에 머물렀다. 1980년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LAFTA) 11개국은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를 창설해 새로운 지역통합을 모색했지만 1980년대에 발생한 외채위기의 여파와 각국이 국내경제의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김원호 외, 1997).

이렇게 정체상태에 머물던 미주의 경제통합은 1990년대이후 빠르게 진전이 되어 1990년대 중반이후 북미와 남미 33개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미주지역에서 자유무역지대의 결성이 구체화되고 있는 배경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 요인들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1990년대 이래 빠르게 진행된 미주지역의 지역통합운동의 흐름이다. 무엇보다도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중요한 지역경제 통합체가 1990년대에 출범한 것이 미주자유무역지대의 추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94년에 출범한

---

<sup>3)</sup> 멕시코를 비롯한 역내 10개국이 ECLA의 지원하에 1960년대에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LAFTA)을 구성했으며, 중미 5개국도 중미공동시장(CACM)을 결성하였다. 1969년에는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중 안데스 근방의 국가들이 별도의 경제협약체인 안데안구룹(후에 ANCOM으로 발전)을 결성하였다.

NAFTA는 선진국과 신흥공업국간에 체결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지지만, 전통적으로 미국의 지배를 우려해서 미국으로부터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외교전략을 구사해 왔던 멕시코가 미국경제와의 편입을 통해 경제발전을 모색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NAFTA 출범을 계기로 북미 3국간의 무역과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멕시코는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역외 국가들로부터 투자가 빠르게 증가되었다.<sup>4)</sup> 또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의 참여로 1995년에 출범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역내 GDP 규모 8천억불에 달하는 남미를 대표하는 지역통합체이다. MERCOSUR는 현재는 관세동맹의 수준에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공동시장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소지역 통합기구들이 활성화되었다. 1960년대 이후 결성되었으나 그동안 정체상태에 있던 안데스공동체(ANCOM), 중미공동시장(CACM),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등 소지역 통합체들이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역동성을 회복하면서 확대 혹은 심화를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결국 소지역통합을 통한 미주 국가들의 경제교류의 확대가 보다 넓은 범지역통합기구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5)</sup>

<sup>4)</sup> NAFTA는 기본적으로 특혜무역기구(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이고 활동영역은 주로 무역과 투자에 집중되고 있지만, 환경과 노동의 이슈도 다루고 있다.

<sup>5)</sup> 중남미 지역주의 다른 하나의 추세는 소지역 통합기구들간의 통합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남미 지역주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남미공동시장과 안

둘째, 1990년대 이후의 국제적 환경의 변화도 미주의 지역통합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우선 냉전질서의 종식으로 인해 국제관계에서 안보나 이념적 대립이 줄어들고 경제력과 경제관계의 상대적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초국적 자본의 경제활동의 증대로 인해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경제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WTO출범으로 다자간 자유무역질서가 형성되는 세계경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의 규모가 협소한 중남미 국가들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역내자유무역과 공동시장을 지향하게 되었다. 유럽통합의 빠른 진전도 미주의 경제통합이 빠르게 확산되는 요인이 되었다.

셋째, 미국의 미주통합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리더십도 미주의 지역통합의 활성화를 촉진시킨 중요한 요인이었다. 현실주의 시각, 특히 패권안정(hegemonic stability) 이론에 따르면, 다수의 행위자가 참여하는 국제협상이나 국제협력의 제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핵심 국가들의 적극적 참여와 리더십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간 경제규모나 발전수준의 차이가 있는 지역에서의 선진국과 개도국, 신흥공업국들간의 경제통합에서 핵심국가의 적극적 태도와 리더십은 더욱 중요한 요인이다(Mattli, 1999). 1980년대까지 미국은 미주

---

데스 공동체는 1995년 2월 각료회의에서 2005년까지 양 지역협력체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기구간의통합은 궁극적으로는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의 결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미에서는 중미공동시장, 카리브공동체, G-3 등 카리브 연안 25개국이 새로운 광역지역공동체인 카리브국가연합(ACS)를 1995년 8월에 출범시켰다.

의 지역통합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미국의 통상정책의 기조는 다자적 자유무역질서의 확립에 우선 순위가 있고, 필요한 경우 쌍무적 접근전략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유럽통합의 빠른 진전과 WTO 협상이 지연되면서 미국은 지역주의를 다자주의에 대한 보완 전략으로 채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1990년대 초부터 미국은 지역주의 통상정책은 다자주의, 지역주의, 쌍무주의 등 다차원적인 접근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APEC에의 적극적 참여, NAFTA의 추진 등이 미국이 지역주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을 보여준다.

특히 1990년대 초반 1988년 캐나다와 체결한 CUFTA를 확대하여 NAFTA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미주의 지역통합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미국이 국내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NAFTA를 추진한 것은 경제적 이득만이 아니라 WTO 협상에서의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한다는 목적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미국이 CUFTA에 멕시코를 포함시켜 NAFTA를 출범시킨 것은 여기서 배제된 다른 중남미 국가들의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게 되었다.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대미수출 및 투자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NAFTA의 출범은 무역 및 투자전환 효과를 우려하는 중남미 국가들로 하여금 대응 차원에서 지역협력과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이념의 수렴현상과 지역정 정체성의 확대가 지역통합을 가속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역통합에 관한 다양

한 이론 중 구성주의(constructivism) 이론은 지역통합의 촉진 요인의 하나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아이디어나 아이덴티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역통합을 통한 경제적 이득과 국가간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국가간의 상호신뢰나 공통의 경제이념 등이 지역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sup>6)</sup>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적 통일성과 문화적, 종교적 동질성, 그리고 독립직후의 범미주통합운동의 전통 등 공통의 정체성을 위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까지도 민족주의적 경제이데올로기와 미국의 지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이러한 동질성이 지역통합의 호조건으로 작용하지 못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경제이념의 수렴현상이 일어나서, 신자유주의 경제이념이 지배적인 경제이념으로 자리잡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반미감정도 약화되어 오히려 미국과의 교역 및 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중남미에서의 경제이념의 수렴현상과 반미감정의 약화가 미주의 지역통합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 III.

미주 자유무역지대의 추진과정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의 사전

---

<sup>6)</sup> 지역주의에 대한 구성주의 시각에서의 연구는 Checkel(1999)와 미주지역의 경우 Corrales & Feinberg(1999)을 참조.

준비 단계와 1998년 4월부터 시작된 공식협상의 진행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1. FTAA 사전 준비단계 (1990년 6월 - 1998년 4월)

미주자유무역에 관한 논의는 1990년 6월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외채경감, 무역증대, 투자확대 등을 포함한 미주를 위한 구상(Enterprise for the Americas Initiative: EAI)을 제안하면서 처음 시작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 구상을 통해 알래스카에서 칠레남단의 띠에라 델 푸에고에 걸치는 전미주 대륙을 자유무역화할 것을 제의하면서 중남미 각국 또는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역내 경제 통합기구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캐나다, 멕시코와의 NAFTA 추진이 이를 위한 첫 시도라고 발표했다.

1994년 11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같은 해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제 1차 미주정상회담(the Summit of the Americas)에서 쿠바를 제외한 미주지역 34개 국가들은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출범하기로 함으로써 미주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회담에서 미주 34개국 정상들은 정치·경제적 민주주의 확립과 발전, 경제통합과 자유무역을 통한 번영의 축 형성, 절대 빈곤과 각종 차별 추방,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연환경 보전 추구 등의 4개 원칙과 이를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채택하였다.

마이애미 정상회담이후 1998년 제2차 미주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까지 4차례에 걸쳐 통상장관회담, 6차례의 통상차관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12개의 실무그룹들(working groups)이 조직되어 협상의제를 선별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준비하였다. 또한 미주개발은행(IDB), 유엔경제위원회(ECLA), 미주기구(OAS) 3개 국제기구가 삼자위원회를 결성해서 미주의 경제통합을 위한 연구와 실무적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협상과정에서 통합형태와 추진방식에 대해 주요 국가들의 견해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 향후의 협상 방식 및 일정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제 2차 통상장관회의에서 미국은 NAFTA를 확장한 형태의 교역, 투자의 전면 자유화를 주장한 반면, 브라질은 WTO 협정을 준수하되 제한적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자유화 할 것을 주장하였다. 캐나다는 미주 전체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통합체를 제안하였고, 멕시코는 WTO협정을 준수하되 역내 국가들을 위한 사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1997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 3차 장관회의에서도 일괄 동시협상을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인 협상을 주장하는 브라질의 의견차가 두드러졌다. 미국은 FTAA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무 그룹별로 논의되고 있는 각 쟁점 분야의 협상을 2005년으로 예정된 출범일 이전까지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브라질은 각국간 상황을 고려해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캐나다와 중미 국가들은 미국측 주장을 지지한 반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

은 브라질의 입장을 옹호해 남미와 북미 진영간의 대립양상이 나타났다(김형주, 2001).

## 2. FTAA 협상 공식 시작(1998년 4월- 현재)

1998년 4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2차 미주정상회담에서는 3월의 4차 통상장관회담에서 합의된 FTAA 세부 추진안을 승인하고, 정상회담 직후부터 2005년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하였다. 동 정상회담에서는 효율적인 협상의 추진을 위해 각국의 통상차관들로 구성된 통상협상위원회(TNC)를 구성키로 합의하였으며 9개의 주제에 대한 실무그룹들을 구성하였다. 통상협상위원회는 정상회의 이후 1999년 4월까지 총 3차례의 회의를 갖고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각 실무그룹은 FTAA 협정문의 부문별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Stephenson, 2001).

제2차 정상회담에서는 미주지역의 주요 현안인 교육, 마약, 인권 분야에 대해서도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3년간 61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 2010년까지 미주전역에 100%의 초등교육 의무화와 75%의 중등교육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마약과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자간 마약퇴치동맹을 결성하였으며, 인권보호를 위한 사무소를 설치키로 합의 하였다. 또한 FTAA 협상의 특징의 하나는 비협상그룹의 관심과 이해가 반영되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인데,

소규모 경제국의 문제, 민간부분 및 전자상거래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3개 ‘비협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어 1999년 11월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개최된 제5차 통상장관 회의에서는 그 동안 진행된 FTAA 협상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후 추진 일정을 결정했으나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확정적인 출범안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한편 협상의 원활한 추진 및 각 실무구rup과 위원회간의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애미에 FTAA 사무국들 설치하였고, 협상을 주재할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2001년 4월 7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 6차 통상장관 회의에서는 FTAA 협상을 2005년 1월 까지 모두 종료하고 2005년 12월에 FTAA를 정식 출범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제 3차 정상 회의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 미국내부의 반대로 미국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FTAA 협상의 전망에 대해 비관적인 무드가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협상도 빠르게 진전되지 못하였다. 1994년 멕시코의 폐소위기로 인해 미국의 재정지원이 늘어나고 NAFTA체결이후 미국의 대멕시코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국내의 반대세력이 증가하였다. 1997년 11월 10일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FTAA의 추진을 위해 의회로부터 승인받으려고 했던 신속협상권에 대해 민주당으로부터도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자 의회통과를 위한 법안상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FTAA의 본격적인 추진이 지연되었고 미국 대외통상정책의 우선 순위에서도 FTAA추진

이 밀려났다.

2001년 4월 20일부터 22일 까지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제 3차 미주 정상회담에서 쿠바를 제외한 이 지역 34개국 정상들은 2005년 말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3차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합의는 FTAA 협상을 늦어도 2005년 1월 까지 끝내고 2005년 12월 이내에 협정을 발효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제 3차 미주정상회의는 제2차 산티아고 정상회의 이후 미국의 FTAA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인해 팽배해 있던 FTAA 출범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불식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은 의도한 2003년까지 FTAA 협상을 조기 완결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MERCOSUR 회원국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제 2차 미주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005년 말까지의 협상 완료 시한을 2005년 1월로 앞당기고 일괄수락(single undertaking) 방식의 협상원칙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sup>7)</sup>

이 회의에서 미주 정상들은 미국을 비롯한 북미와 중남미가 힘을 합쳐 정보통신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아시아와 유럽과 경쟁하겠다는 정치경제적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 회담에서 2015년까지 지역내의 극빈 생활자의 숫자를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미주개발은행은 향후 5년간 400억 달러, 세계은행은 향후 3년간 160억 달러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상품교역, 서비스, 정부조달

---

<sup>7)</sup> 3차 정상회의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는 Fauriol(2001), Drummond(2001), 정인교 외(2001)를 참조.

및 투자 들의 시장접근 협상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을 위한 준비작업을 2002년 4월 1일 이내에 완료하기로 하고, 동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상품 및 분야별 시장접근 협상을 늦어도 2002년 5월 15일 이내에 시작하도록 합의하였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그간 미국이 주장해온 노동 및 환경문제가 FTAA 협상의 경제·사회 분야의 의제로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반영되었다. 그러나 FTAA 협상의 주요 쟁점 분야인 농업정책의 범위에 관한 문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의 현격한 이견을 보였다. 그 동안 FTAA가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견제해왔고, 점진적 협상을 주장해온 브라질의 까르도조 대통령은 FTAA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했지만 미국이 반덤핑규제 등 비관세장벽을 낮출 것과 농업보조금의 삭감 등을 요구해서 미국과 브라질의 상반된 시각들 나타냈다.

2002년 11월 에쿠아도르 Quito에서 개최된 제 7차 통상장관 회의에서는 3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FTAA 협상의 진전을 평가하고 실무적 조치를 취하였다. 제 7차 통상장관 회의에서 특징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FTAA 협정문 초안의 두 번째가 발표되었다. 협정문은 아직 구체적 내용들이 협상을 통해 채워져야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들 의미한다. 둘째, 이 회의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소국과 개도국이 FTAA의 출범으로 인한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적 무역 증진프로그램인 미주 협력 프로그램(Hemispheric Cooperation Program)을 출범시

켰다. 이를 위해 미국은 2003년까지 미국의 경제원조 금액을 증가시킬 것을 천명하였다.

< 표 1> FTAA 주요 협상 일지

회의		일자	개최장소
정상회의	1	1994 12	캐나다 퀘벡 멕시코 몬테레이
	2	1998 4	
	3차	2001년 4월	
	4차	2004년 1월	
통상장관회의	1	1995 6	코스타리카 산호세 캐나다 토론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에파도르 꾸토 미국 마이애미
	2	1996 3	
	3	1997 5	
	4	1998 3	
	5	1999년 11월	
	6차	2001년 4월	
	7차	2002년 11월	
	8차	2003년 11월	
통상차관회의	1	1995 9	코스타리카 산호세
	2	1997 2	
	3	1997 4	
	4	1997 6	
	5	1997 10	
	6차	1998년 2월	

자료: FTAA Process[Online], <http://www.sice.oas.org/ftaa>

또한 미국과 브라질이 2005년까지 FTAA 협상의 공동의장을 맡기로 결정하였다. 미국과 브라질은 FTAA협상의 성패를 결정지을 실질적인 리더 국가로서 이 두 국가가 공동의장을 맡으므로 FTAA 협상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회의에 앞서 제 7차 미주 비즈니스 포럼(Americas Business Forum)이 개최되어

기업인 차원에서의 FTAA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건의문을 장관회의에 제출하였다. 또한 미주 통상장관들은 환경단체, 노동조합 등 시민단체의 대표들과 만나서 FTAA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오랫동안 시민사회 단체들은 FTAA 협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해 왔지만 거부되어 왔다.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참여요구가 증가되어 처음으로 장관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FTAA에 관한 공식적인 대화의 자리가 Quito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민사회 대표와의 만남은 FTAA 협상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FTAA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와 우려를 무마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3. 최근 FTAA 협상의 진행상황과 주요 쟁점

현재까지의 FTAA 협상의 진행과정을 보면 목표처럼 FTAA가 2005년에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무역증진권한(TPA)를 획득하는 등 국내적 지지를 확보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반면 Mercosur는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브라질 경제의 취약성, 칠레와 미국의 FTA 체결 등 내부적 취약성을 노출하면서 미국의 주도하에 협상이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TAA 협상이 미국의 주도하에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FTAA의 진전을 가로막는 쟁점들도 지적할 수 있다.

#### 1) 미국의 농업보조금 지급 문제

현재 FTAA 협상의 최대 쟁점은 미국이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가의 문제이다. 특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대미 농수산물 수출국들은 미국이 농업보조금을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보조금 지급을 감소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이슈이다. 우선 농수산물은 미국의 TPA(trade promotion authority)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품목이다. TPA는 행정부가 추진한 무역자유화 협정을 의회가 거부하거나 비준할 수는 있지만, 조항을 수정할 수는 없도록 함으로써 협상을 신속하게 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농산물이 TPA의 예외라는 것은 농산물에 관한 협상이 매우 어렵고 의회의 개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농업보조금 문제는 Doha 라운드 협상의 핵심 쟁점이기도 하다. 도하 라운드에서도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농업보조금 지급을 계속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FTAA에서의 농업보조금 감소를 도하 라운드 협상과 연계해서 결정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미국이 농업보조금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FTAA 협상에서 다른 부문의 시장개방에 대한 각국의 태도가 소극적인 상황이다.

## 2) 미국의 반덤핑 조치 등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의 완화요구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공산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등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국내산업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 다양한

공산품을 수출하고 있는 브라질의 시각에서는 미국이 자국의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 등 보호주의적 정책을 완화시킬 것을 FTAA협상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이 계속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3) FTAA에 국가들 사이의 상이한 이해

FTAA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는 다른 요인은 국가별로 FTAA에 대해 상이한 이해와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중미의 가장 중요한 국가인 멕시코는 FTAA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멕시코는 NAFTA를 통해 미국시장에의 우선적 접근의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TAA가 진행되어 멕시코의 특권적 지위가 상실되는 것을 내심 원하지 않는다. FTAA에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또한 미국이 칠레와 FTA를 체결하고, 중미국가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도 FTAA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IV.

### 1. 미주자유무역지대 출범의 촉진요인과 장애 요인

미주자유무역지대는 선진국에서 후진국까지 경제규모나 산업구조 등에서 다양한 국가들 사이의 경제통합이다. 국가들의 이질성과 개별 국가들의 이해관계의 상충 등으로 인하여 FTAA가 실제로

출범하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물론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면 미주자유무역지대의 출범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 미주자유무역지대와 같은 광범위한 지역통합체의 창설은 소지역 통합체나 쌍무적 자유무역협정보다 많은 경제적 이점을 갖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적 이점으로 시장의 확대와 규모의 경제의 확보, 무역과 투자에 대한 상호특혜 대우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사실 1990년대 이래 미주지역은 무역자유화와 소지역 통합체의 창설 등으로 인해 높은 역내무역의 증가율을 보여왔다. 역내무역의 증가율은 GDP의 증가율을 상회해왔다. 소지역 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은 중남미의 협소한 시장규모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경제통합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들과 산업계는 소지역 경제통합을 범지역 수준으로 확대하여 시장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를 원한다. 또한 미주자유무역지대의 출범으로 인해 역내국가간의 새로운 무역이 발생하는 무역창출(trade creation) 효과와 역외국가와의 교역이 역내 국가들간의 교역으로 대체되는 무역전환(trade diversion)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미주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수요와 지지는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통합은 경제적 효율성과 이득의 차원에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지역통합의 성공여부는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Mattli는 지역통합을 촉진하는 요인을 수요조건과 공급조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가장 주

요한 수요조건은 지역통합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득을 의미하는데, 미주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수요조건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주자유무역지대의 경제적 이득은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Mattli는 지역통합을 촉진하는 공급조건으로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태도와 핵심국가들의 리더십을 강조하였다(Mattli, 1999).

정부간주의(intergovernmentalism) 이론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통합기구의 출범은 국가들간의 협상과 이해의 조정을 통해서 결정된다.<sup>8)</sup> 또한 미주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이 미주전체에게 분명한 시장의 확대, 효율성의 증가,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등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더라도 이러한 경제적 이득의 분배는 균등하지 않다.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국가간 협력에서 개별 국가들은 절대적 이득(absolute gains)보다는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의 배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구성주의(constructivism)이론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수준의 공통의 아이덴티티, 상호신뢰의 정도, 공통의 이념의 존재여부도 지역통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에서 지적한 지역통합의 성공조건에 관한 기존의 이론과 연구를 고려하면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순조롭게 협상이 진전되어 2005년까지 출범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미주지역의 소지역 통합

---

<sup>8)</sup> 지역통합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자인 Moravcsik(1998)은 지역통합은 국가간의 이익 결집, 정부간 흥정, 그리고 제도를 통한 집행의 3단계를 통해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체의 현실을 살펴보면 야심찬 목표에 비해 실적은 턱없이 모자란 것을 흔히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면 MERCOSUR처럼 공동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관세동맹에 머물고 이마저도 국가간의 이해관계의 차이와 경제위기 등으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FTAA는 경제규모와 발전단계, 산업구조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33개국이라는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이해와 이견을 조정하면서 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FTAA를 이끄는 핵심 국가들인 미국과 브라질이 FTAA 협상의 의제, 진행방식 등에서 상당한 갈등과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FTAA 출범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비관론자들은 FTAA협상을 통한 미주자유무역지대의 출범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오히려 미국이 NAFTA를 확대해서 제한된 국가만 참여하는 제한된 FTAA의 출범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sup>9)</sup>

## 2. FTAA의 출범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

FTAA 협상이 향후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예정대로 2005년에 출

---

<sup>9)</sup> 피터 스미스는 미주자유무역지대 출범에 대해 주요 국가들이 상이한 세 가지 전략을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첫 번째 전략은 FTAA를 위한 새로운 미주 전체협정 체결 방식으로 브라질, 캐나다 등이 선호하는 전략이고, 두 번째 전략은 기존의 NAFTA를 미주 전체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중미, 카리브해 국가들이 선호하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북미의 NAFTA와 남미의 SAFTA를 통합하는 전략인데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이 선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Smith, 1999).

범할 수 있을 지는 현 시점에서 예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만 앞으로 FTAA의 출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들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지적할 수 있다.

### 1) 미국의 적극적 태도와 리더십

먼저 미국의 적극적 태도와 리더십이 향후 FTAA협상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변수이다. 30여 개국이 참여하는 FTAA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규모나 영향력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의 적극적 태도와 리더십의 발휘가 필요하다. 실제로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FTAA협상을 지지하는 이유는 미국시장에의 접근이 용이해진다는 점이다.

현 부시 공화당정부가 FTAA 협상의 신속한 추진을 미국 대외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FTAA 성공적인 출범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현 부시 행정부가 FTAA 타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선 멕시코라는 이웃국가와의 NAFTA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험을 했고 이제 이를 확대하는데 자신감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전 부시 대통령이 1990년 미주를 위한 구상에서 FTAA를 제안했을 때도 미국은 미주자유무역지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멕시코와의 NAFTA를 먼저 추진했고 NAFTA의 경험을 통해 이를 미주 전체에 확대하는데 어느 정도 자신과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정부의 국내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도 유리한 조건이다. 상원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이 비록 동수이지만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신속처리 협상권을 의회로부터 획득하는 것이 클린턴 정부 시기보다는 비교적 용이했다. 실제로 2002년 8월에는 신속 협상권(Trade Promotion Authority)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원은 215-214의 간발의 차이로 통과되었고, 상원에서는 66-30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TPA를 부여하였다. 부시 정부는 의회로부터 TPA를 획득하면서 FTAA협상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었고 FTAA 협상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 클린턴 행정부가 의회의 신속협상권 획득에 실패한 이후 FTAA 정체가되었던 경험은 미국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미국내의 노동계와 환경단체들은 물론 중남미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 것을 우려해 FTAA 추진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부시 정부는 이들의 반대를 넘어 국내적 지지를 획득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퀘벡 정상회담에서도 반대자들의 시위로 인해 회의일정이 변경되는 상황이 재연되었다 (Cooper, 2001).

또한 미국이 FTAA 협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도국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각오를 해야 하고 FTAA를 두려워하거나 소극적인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 그러나 현 부시 행정부의 외교전략의 기초가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는 현실주의(realism)에 바탕을 두고 있고, 이를 위해 다른 나라와의 협조보다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일방주의(unilateralism)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화당 행정부의 외교정책 스타일이 FTAA과정에서 나타날 경우 미주 각국들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정부는 칠레와의 FTA 협상을 연내에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고, 중미 5개국과의 FTA도 추진중이다. 2003년 2월 11일 미국정부는 FTAA가 출범하게 될 경우 과감한 관세인하와 무역장벽을 낮추는 제안을 발표하였다. 미국 정부는 2005년 FTAA가 출범하게 되면 미주지역 국가들로 부터의 소비재와 산업재의 약 65%는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56%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제안은 FTAA협상의 진전을 위한 미국의 리더쉽과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생각되고 협상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시장개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FTAA에 참여하는 중남미 국가들의 가장 큰 인센티브는 미국시장에의 접근인데, 미국이 자국시장의 개방화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FTAA추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은 분명하다.

다만 2001년 9.11 사태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의 우선순위가 안보문제, 특히 반테러 전쟁에 주어지고 있는 것은 FTAA협상의 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 부시행정부는 이라크와의 전쟁과 북구

사업과 북한 핵개발 저지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미주지역과 FTAA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으로 쇠퇴하고 있고 미국의 적극적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FTAA협상도 정체되고 있는 인상이다.

이라크 전후 처리문제가 이라크 내에서의 계속되는 테러위협과 혼란, 그리고 동맹국들의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과 비협조 등으로 국내외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러한 예기치 않은 상황의 전개로 인해 미국 내에서의 부시의 지지도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내년 대선에서의 재선도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처리문제를 마무리하고 경제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FTAA협상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이라크의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고 내년대선에서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FTAA 협상과 출범은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2) MERCOSUR, 특히 브라질의 전략과 협조

FTAA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의 하나가 MERCOSUR, 특히 브라질의 태도와 협조 여부이다. MERCOSUR 회원국의 FTAA에 대한 입장은 이중적이다. 한편으로는 FTAA 출범이 미국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무역 및 외국직접투자의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MERCOSUR 회원국들은 이미 무역 및 투자가 다변화되어 있고 무

역 상대국들 중 유럽과 아시아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FTAA 출범으로 인해 이 지역 국가들과의 무역 및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빠른 무역자유화가 보호되어 왔던 국내 제조업을 약화시키고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브라질을 중심으로 MERCOSUR는 미국 주도의 신속한 FTAA 협상에 반대해 오고 있으며 일괄 협상을 주장하는 미국과는 달리 점진적, 단계적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 동안의 FTAA 협상에서는 이러한 MERCOSUR의 입장이 반영되어 미국과 마찰을 겪어왔다. 특히 MERCOSUR GDP의 75%, 제조업 생산의 80%를 차지해서 MERCOSUR를 주도하는 브라질은 자국 제조업의 보호에 적극적이다. 브라질 노동당과 노조는 FTAA추진이 국내산업의 기반을 붕괴하고 고용을 감소시킬 것을 우려해서 FTAA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자국산업의 보호라는 경제적 이유 뿐만이 아니다. 브라질은 남미의 지역패권국가는 물론 잠재적인 세계강대국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FTAA가 미국의 주도하에 추진되면, 브라질의 정치적 영향력이 쇠퇴하고 남미가 미국의 영향력에 편입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과 MERCOSUR는 FTAA 협상에서의 교섭력 증진을 위해 내연적 심화 및 외연적 확장을 도모해 왔다. 이미 칠레, 볼리비아를 준회원국으로 받아 들어서 MERCOSUR의 확대를 모색하여왔고, 또한 안데스공동체(ANCOM) 등 중남미 소지역통합체와의 FTA를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의 결

성을 추진하여 왔다. 2000년 9월 1일 브라질에서 남미 12개국 정상들이 남미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서에 서명했고, 2001년 8월 출범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왔다(Barbosa, 2001; Roett, 1999; 서경태, 2000).

이러한 MERCOSUR의 이러한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2001년 8월로 출범 예정이었던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 결성도 회원국간의 이견으로 연기되어 왔다. 또한 MERCOSUR 회원국들 사이에 FTAA에 대해 다른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FTAA 협상이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반대하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추진을 원하는 브라질과는 달리 다른 회원국들은 기본적으로 FTAA의 추진을 원하고 있다. 미국도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과의 FTA 협상 등으로 전략적으로 MERCOSUR회원들간의 입장의 차이를 이용하고 있다. 브라질이 FTAA를 거부할 경우, MERCOSUR회원국 사이의 분열이 심화될 수 있고 이는 브라질만이 아니라 MERCOSUR 회원국전체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제3차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것처럼 브라질은 FTAA 협상의 진전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면서 협상과정에서 브라질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2년 브라질 대선에서 좌파 성향의 노동당의 루이스 아니시오를라 다 실바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FTAA의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었다. 좌파 정부가 집권하면서 선심성 정책과 현실을 무시한 과격한 변혁 기도로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

다. 실제로 룰라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시기에 FTAA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FTAA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중남미 경제를 미국경제로 합병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2003년 1월 1일 취임한 룰라 대통령은 집권이후 매우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경제 정책들을 추진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고, 외국투자자와 시장의 신임을 얻었다. 전임 카르도수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초를 유지하여, 긴축재정과 안정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금융권의 호평을 얻어 왔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연금제도 개혁에 앞장서는 한편 빈부격차 해소와 기아퇴치 프로그램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내외에서 룰라 정권에 대한 높은 신뢰와 지지도를 유지해왔다. 룰라 정부의 현실주의적 경제정책의 흐름속에서 브라질 정부는 FTAA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룰라 정부가 FTAA 협상에서 브라질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미국을 견제하려는 노력은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FTAA 협상을 반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다.

### 3) 중남미 지역의 정치경제적 안정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적 안정도 FTAA 진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94년 말 멕시코 폐소화 위기에 이어 1998년 동아시아외환위기의 전염효과에 따른 중남미의 거시경제적 불안정이 FTAA협상의 진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경험이 있다. 아르헨티나가 겪은 것과 같은 금융위기가 재발하고 확산될

경우 FTAA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중남미 국가들의 전반적인 신용평가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중남미 국가들은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선호하게 되어 시장개방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역사적으로 중남미 국가들은 경제위기가 닥치면 민중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으로 선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경제위기와 낮은 경제 성장율은 중남미 각국에서 무역자유화로 인한 국내 희생자들의 저항을 격화시키고 보호무역주의 감정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위기는 미국 내에서 반대파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FTAA 협상에 대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페루, 베네주엘라, 에쿠아도르 등 안데스지역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되면 FTAA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기가 어려워진다. 베네주엘라 차베스 정권의 FTAA에 대한 반대도 협상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 4) FTAA에 대한 반대여론과 시민운동

FTAA의 출범에 대해 미주지역의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어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Anti-FTAA운동이 FTAA 협상과 출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FTAA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는 오래 전부터 산발적으로 있었지만, 2001년 캐나다 퀘벡에서 개

최된 3차 FTAA 정상회담에서 수 만명의 시민단체가 FTAA 반대 시위를 조직화했고, 보통사람들의 정상회담(People's Summit)을 개최하여 FTAA 출범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조직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퀘베회의 이후에는 미국 시민단체들은 부시 행정부의 TPA부여 거부운동을 전개하였다. 2003년 1월 브라질 뽀르또 알레그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 (World Social Forum)에서도 미국과 다국적자본이 주도하는 FTAA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Anti-FTAA 운동이 FTAA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지는 못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하겠지만, FTAA를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응집력을 가지고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게 되면 FTAA의 내용과 협상과정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FTAA를 반대하는 시민운동의 반대의 논리와 이유는 다양해서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이들은 FTAA가 경제성장과 번영을 가져오기 보다 가난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FTAA가 노동자들의 권리와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약화시키고, 환경파괴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철저적인 측면에서는 FTAA 협상이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없이, 미국 등 주요정부의 입장과 자본의 이해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 5) 뉴라운드 협상의 진행과정

WTO 후속협상의 진행과정도 FTAA의 진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미국은 뉴라운드를 통해 다자적 무역질서를 출범시키는 전략과 FTAA와 APEC을 통한 지역주의 전략, 그리고 쌍무적 전략 등 다차원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해왔다. 지난 1999년 12월 씨애틀에서 개최된 제 3차 WTO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이후 미국이 FTAA 출범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뉴라운드 협상이 지연되면 본격적으로 FTAA를 추구하고, 또한 FTAA협상이 지연되면 칠레 등 개별 국가들과 쌍무 협상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다면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WTO의 후속협상으로 현재 진행중인 도하(Doha) 라운드 협상 진전과정이 FTAA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주의적 규범은 미주지역 차원의 무역자유화의 규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Cancun에서 개최된 WTO의 제 5차 각료회담이 국가간의 입장을 조율하는데 실패하여 공동선언문 채택에 실패한 채 폐막되었다. 이번 깐쿰 회의는 제 4차 각료회의에서 출범시킨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중간 점검과 향후 협상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였다. 이 회의가 결렬되었기 때문에, DDA 협상의 타결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졌고, 세계 다자간무역질서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도하라운드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쌍무적(bilateral)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주자유무역지대 협상에도 다시 한번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FTAA의 출범에 관한 세 가지 시나리오

위에서 제시한 변수들에 따라 FTAA 협상의 성공여부와 출범의 가능성이 결정되겠지만 다음의 세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할 수 있다.<sup>10)</sup> 첫번째 시나리오는 협상이 신속히 추진되어 FTAA가 목표대로 2005년 출범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의회에서의 신속협상권을 획득하는 것을 물론 FTAA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브라질을 중심으로 하는 MERCOSUR가 협상에 협조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중남미 국가들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FTAA 협상 타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WTO 후속협상이 부진해지고, EU가 중남미와의 관계를 강화할 경우 미국은 FTAA 협상타결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NAFTA의 확대를 통한 제한적 FTAA이다. 미국이 의회에서 신속협상권을 획득 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MERCOSUR의 비협조 등으로 FTAA 협상이 결렬 혹은 지연되는 경우 미국이 개별 국가 및 소지역 협력체와의 FTA를 통해 NAFTA를 확대하는 형식의 '제한적인 미주자유무역지대' 혹은 NAFTA Plus 실현이 대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많은 중미국가들이나 카리브 국가들이 미국과의 쌍무적 FTA를 위해

---

<sup>10)</sup> 이 세가지 시나리오는 정인교 외(2001)와 Haggard(1998)를 참조.

왔고, 특히 MERCOSUR 회원국 중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도 미국 시장에의 접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추진할 경우 NAFTA 확대를 통한 미주자유무역지대 결성 가능성은 매우 높다. 현재 미국은 금년 말 타결을 목표로 칠레와의 FTA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물론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중 유일한 미국과의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과 기득권을 잃는 것을 원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이를 추진할 경우 반대할 수단이 없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 시나리오를 FTAA 협상과정에서 MERCOSUR를 압박하는 협상카드로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FTAA 협상이 지연 혹은 결렬되는 경우이다. 미국 부시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복구 사업 등으로 인해 중남미지역을 간과하게 되면 클린턴 행정부 시기와 같이 FTAA협상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 경우 FTAA 협상은 지연되거나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남미에서는 MERCOSUR를 중심으로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의 결성이 다시 추진될 것이고, 미주 지역 경제통합은 NAFTA와 SAFTA에 의해 양분되게 될 것이다.

## V. FTAA

현 시점에서 FTAA의 영향을 예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FTAA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예정대로 FTAA 출범이 이루어질 것인지 불투명하고, 앞에서 제시한 세 가

지 시나리오에 따라 FTAA의 영향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 1. 세계경제에의 영향

모든 미주 국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FTAA가 출범하게 되면 8억명의 인구와 12조 달러에 달하는 GDP규모를 갖게 되어 유럽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된다. 따라서 FTAA출범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수 밖에 없고, 특히 WTO 다자적 무역질서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긍정적 영향으로는 FTAA의 출범은 비교적 무역장벽이 높고 보호주의적 경제정책을 유지해오던 중남미 지역의 국가들이 세계경제에 본격적으로 편입이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자유무역질서가 보다 확대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FTAA 협상이 2005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자 미주 시장을 잃을 것을 우려한 EU와 중남미 국가들의 FTA가 활발해 지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 FTAA가 자유무역 확대에 기여할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다른 한편 부정적 영향으로는 FTAA를 통해 미주지역이 유럽처럼 배타적인 경제블록을 형성할 경우, 경쟁적 지역주의의 파고가 더욱 거세지고 아시아에서도 경제블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가능성도 있다. FTAA의 출범은 역외 국가들에게는 미주시장에의 접근에서 상당한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은 FTAA추진을 통해 중남미 시장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또한 일본, EU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서 WTO 후속 도하 라운드 협상에서도 FTAA를 협상 레버리지로 이용할 것이다. 따라서 FTAA 출범은 WTO 후속 도하라운드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후속 도하라운드의 진전이 FTAA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Cancun에서 개최된 WTO 도하라운드가 농업 보조금 등 국가들간의 이견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끝나게 되어, 도하라운드의 앞날의 불투명하게 되었다. WTO 후속 라운드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미국이 FTAA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전망이고 협상의 쟁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미주지역에의 영향

FTAA가 출범하게 되면 중남미 지역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높기 때문에 역내무역이 큰 폭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쟁의 효과와 규모의 경제효과로 산업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FTAA가 출범하면 미국은 MERCOSUR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수출과 수입을 각기 26%, 5.6%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반대로 MERCOSUR를 제외한 남미 국가들은 대미 수입과 수출을 각기 18.8%와 11.6%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인교 외, 2001).

그러나 FTAA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FTAA가 미국의 다국적

자본의 이해만을 반영할 뿐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국 노동조합은 NAFTA가 70만 일자리의 감소를 초래하였는데, FTAA는 보다 많은 일자리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FTAA의 출범은 경제적 측면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도 미주지역 국가들에게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3차 정상회의의 선언문(Declaration)과 행동계획(Plan of Action)을 살펴보면 FTAA는 자유무역만이 아니라, 미주의 민주주의 발전, 빈곤퇴치, 환경보호 등의 광범위한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EU의 경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경제통합이 진전되면 회원국들간의 군사안보, 사회정책에서도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연계효과가 나타난다. FTAA의 출범은 미주전역의 민주주의 제도정착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나아가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협력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FTAA이 출범하면 경제적으로 압도적 우위에 있는 미국이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미주전역에서 패권을 공고히 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3. 한국경제에의 영향과 한국의 대응전략

FTAA의 출범은 미주지역과 상당한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경제와 기업들에게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주지역은 우리나라 총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지역이고 한국이 지

속적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FTAA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무역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FTAA가 출범하면 미국이 우리로부터 수입하던 것의 일부가 역내로 전환될 것이며 중남미시장에 대한 우리 수출의 일부도 역시 역내로 전환될 것이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시장보다는 중남미 지역으로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무역장벽이 낮아진 선진국시장보다는 중남미의 무역장벽이 높기 때문에 한국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대중남미 수출품들이 중남미 시장에서 선진국 제품과 주로 경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FTAA가 출범하면 한국의 대 중남미 수출은 10-12%(약 7억 달러) 감소하고,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FTAA 출범으로 이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에 대한 FDI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정인교외, 20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FTAA의 출범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이 0.12%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섬유, 의류산업, 자동차산업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강문성 외, 2003).

중남미는 33개국, 인구 5억, GDP 2조 달러, 연간 무역액 6천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다. 현재 중남미 지역 수출이 한국의 총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중남미와의 무역에서 연속해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FTAA를 계기로 중남미 시장의 규모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FTAA의 출범만이 아니라 지역경제통합이라는 범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가능한 많은 국가와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과 교역비중이 높은 미국, 일본, 중국, ASEAN 등과 FTA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멕시코, 칠레, 브라질 등과 FTA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FTA체결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한국은 현재 하나의 자유무역협정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추진되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도 농산물시장 개방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체의 결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체가 형성되면 개별국가보다 FTAA나 EU와의 협상 등에서 개별국가보다 유리한 협상의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미주지역에 생산거점을 마련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는 역외 기업들에 대한 차별을 극복한다는 측면이외에도 물류비용 절감, 부품 산업 동반 진출 등의 장점이 있다.

커다란 시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중남미와 북미가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는 추세는 이 지역의 시장 잠재력을 겨냥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하나의 도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이기

도 하다. 한국정부나 기업들이 이러한 미주지역의 지역주의 추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미주자유무역지대의 출범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기회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 **Abstract**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recent trend of economic integration in Latin America and prospects of the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FTAA) negotiations. The region-wide trend of economic liberalization and reform, the successful launching of NAFTA and MERCOSUR, and the revitalization of existing regional arrangements, such as the Andean Pact and the Central Common Market (CACM), contribute to the recent progress of the FTAA negotiations. If it is launched in 2005 as planned, the FTAA will be the largest trade bloc comprising a market of 800 million populations and maintaining a GDP of \$12 trillion dollars. Therefore, the FTAA is expected to provide profound impacts on the American region both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However, it remains uncertain whether FTAA negotiations will progress smoothly. The thirty-four countries which are currently participating in the FTAA negotiations have differing interests and positions toward various agenda of the FTAA negotiations, thus making it hard for them to reach a consensus and agreement. The successful progress of FTAA negotiations will be determined by a number of factors. The most crucial variable will be the leadership role of the United States. Another crucial factor is the policy of the MERCOSUR and its leader Brazil toward the FTAA negotiations. Regarding the prospects of the FTAA, the three scenarios are suggested in this article. The first scenario is the smooth progress of FTAA negotiations and a successful launching of the FTAA in 2005. The second scenario is the launching of the FTAA with a limited scope. The final scenario is the failure or delay of FTAA negotiations.

Key Words: FTAA, Regionalism, Latin America, economic reform, economic integration / 미주 자유무역지대, 지역주의, 라틴아메리카, 경제 개혁, 경제통합

논문투고일자: 2004. 1. 15

게재확정일자: 2004. 2. 13

**참고문헌**

- 강문성 외(2003),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원호 외(1997), 『미주지역 경제통합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형주(2001), 「FTAA 출범의 의미와 전망」, 중남미 포럼 발표논문, 6.29.
- 권기수(2001), 「미 부시행정부의 대중남미정책과 향후 과제」, 세계경제, 3월, pp. 245-263
- 권기수(2003), 「최근 미주자유무역지대(FTAA)협상 동향 및 전망」, 세계경제, 4월, pp. 98-106.
- 권기수(2003), 「최근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발전동향과 향후 과제 미주자유무역」, 세계경제, 4월, pp. 87-96.
- 서경태(2000), 「FTAA를 향한 NAFTA와 Mercosur사이의 갈등 및 시사점」,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3, No. 2, pp. 245-263
- 이경희(2001),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의 추진경과와 향후전망」, 세계경제, 3월, pp. 57-68.
- 이내영 (2002),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추진경과와 출범 전망」, IRI 리뷰, Vol. 7, No. 1, pp. 39-77.
- 정인교 외(2001),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출범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KIEP 동향분석속보, 4월 25일.
- Abbott, Frederick M.(2000). "NAFTA and the Legalization of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4, No. 3, pp. 519-47.

- Anderson, Kim and Richard Blackhurst (1993), *Regional Integration and the Global Trading System*, London: Harvester.
- Barbosa, Rubens(2001), "A View from Brazil,"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4, No.2, pp. 149-157.
- Castañeda, Jorge (2003), "The Forgotten Relationship," *Foreign Affairs*, Vol. 82, No.3, pp. 67-81.
- Choi, Young Jong and Nae Young Lee(2002), "East Asian Reg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Asian Perspective*, Vol. 26, No. 3, pp. 169-192.
- Checkel, Jeffrey(1999), "Norms, Institutions, and National Identity in Contemporary Europ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3, No.1, pp. 83-114.
- Cooper, Andrew (2001), "The Quebec City 'Democracy Summit'",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4, No. 2, pp. 159-171.
- Corrales, Javier & Richard E. Feinberg(1999), "Regimes of Cooperation in the Western Hemisphere: Power, Interests, and Intellectual Tradi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4, No. 1, pp. 3-36.
- Drummond, Maria Claudia(2001), "Guide Globalization into a Just World Order,"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4, No. 2, pp. 173-183.
- Fauriol, Georges and Sidney Weintraub(2001), "The Century of the Americas: Dawn of a New Century Dynamic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4, No. 2, pp. 139-148.
- Feinberg, Richard(2002), "Regionalism and Domestic Politics: U.S.-Latin American Trade Policy in the Bush era."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Vol. 23, No. 2, Winter, pp. 125-143.
- Frankel, Jeffrey A.(1997) *Regional Trading Blocs in the World Economic System*.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Grieco, Joseph M.(1997) "Systemic Sources of Variation in Regional Institutionalization in West Europe, East Asia, and the Americas," in Edward D. Mansfield and Helen V. Milner(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164-187.

- Haggard, Stephan(1998),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in the Western Hemisphere," in Carol Wise,(ed.), *The Post-Nafta Political Economy: Mexico and the Western Hemisphere*,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pp. 123-148
- Mansfield, Edward D. and Helen V. Milner(1999), "The New Wave of Reg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3, No. 3, pp. 589-628.
- Mattli, Walter(1999), *The Logic of Regional Integration: Europe and Beyo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larty, Thomas(2001), "Summitry and the Americas- Perspective on the First and Second summits," CSIS reserch report, April 9.
- Moravcsik, Andew(1998), *The Choice for Europe*, Ithaca: Cornell University.
- Roett, Riordan(ed.)(1999), *MERCOSUR*. Boulder: Lynne Rienner.
- Smith, Peter(1999), "Whither hemispheric integration?", *Business Economics*, Vol. 34, No. 3, pp. 38-46.
- Stephenson, Sherry(2001), "The State of the FTAA Negotiations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A Conference Paper, March.
- Traverse de Araujo, Jose(1998), "FTAA: Risks and Opportunities for Brazil," a research report, OAS Trade Unit, [www.sice.org/tunit/studies](http://www.sice.org/tunit/studies).
- Weintraub, Sidney(2002). "FTAA Prospects," *Issues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No. 36, pp. 34-41.
- WTO(2001), *Mapping of Regional Arrangements*. Geneva: WTO Secretariat.